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발행인 김종기  
편집인 정원상  
주소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Tel. 054-805-3981  
Fax. 054-805-3989 www.gbe.or.kr

# 지명종

→ 교육활동 및 회의활동 2~4면  
→ 건강 기획연재 7면

→ 행사 및 현장활동 5면  
→ 조합원 사랑방 8면

→ 공무원 노총 및 지부 소식 6면



## 경북교육노조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사문화우수행정기관대상” 선정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6.1.20.(수)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건전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대상 수상과 함께 우수기관인증패를 받았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2010부터 건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의 공무원단체 중 매년 7~9개 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며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 중 3개 기관에게 대상(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을 시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6년간 약 44개 기관과 공무원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으며 대상을 수상한 공무원단체는 대부분이 자치단체소속들이고 교육기관은 경북교

육청과 대전교육청 등 2개 교육청뿐이다.

선정방법은 노동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심사위원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노사문화실천과 정착에 대한 노력 등 4개 분야에 걸쳐 1차(70%) 서류심사와 실사 2차(30%) 우수사례발표를 통해서 최종 선발되었다.

김종기 노조위원장은 “2015년 노사문화 대상 선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전 수상을 계기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 신장과 소통과 화합, 상생하는 경북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영우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적 발전을 도모해 명품 경북교육 완성을 위해 노사가 동행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16년 상반기 노사교육 실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6년도 상반기 노사교육을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하였다.

첫날인 제1권역(경산, 청도, 영천, 군위, 고령)교육은 경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약 400여명의 조합원 참석하였고, 둘째날 제2권역(구미, 김천, 성주, 칠곡, 상주)교육에는 약 650명의 많은 조합원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석하여 노사교육에 대하여 예전과 다른 관심을 보였다.

첫째날과 둘째날에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권정숙 행정지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교육청노조가 출범한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고, 특히 최근 3년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이는 우리들의 평가가 아니고 경북교육청노조가 201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노조의 힘은 단결이다. 단결은 힘든 것이 아

니라 노조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체가 단결이고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노조의 힘이며 그 힘이 조합원 권익개선의 동력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 참석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다.

이번 노사교육에서는 유한양행의 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광진 고용노동연구원 객원교수의 노사관계에 대한 강의와 김종기 위원장이 2015년도 경북교육청노조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1월 21일 진행된 제3권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주, 예천, 봉화, 문경)지역 교육에서는 약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며, 1월 26일 제4권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서도 약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다.

경북교육청노조의 노사 교육은 연 2회 동·하절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경북교육청노조와 경북교육청간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 제3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12월 12일 11시에 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24개 시·군지부 약 100여명이 모여 제3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015년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상처만 남기고 공무원노조는 힘든 투쟁을 했던 한해였으나, 아픔과 시련이 많을수록 더욱더 함께 나아가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며, 앞으로 경북교육청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되어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켜 경북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이어 이명구 부위원장의 명예퇴직으로 노조에서 조합원들의 권익개선과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한 그 공을 기리고자 공노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서 전차회의 결과, 국별 주요 활동보고와 201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보고가 있었다. 안전 심의에서는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사업계획서 및 경북교육노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이 가결되었다.

## 제62차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일시 : 2015. 12. 2. (수) 10시

장소 : 경북교육노조사무실



## 제23차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일시 : 2016. 2. 17. (목) 11시

장소 : 경북교육노조사무실







## 경북교육청노사협의회

### 2015년 4/4분기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노사협의회 결과

- ☞ 일자 : 2015. 12. 21. (월)
- ☞ 장소 : 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 협의내용 :

노동조합의견	협의결과
노조주관행정효율화T/F팀 제안사항에대한사후조치	-지역시설거점지원센터 기능강화: 정원을 조정하여시설거점지원센터등재배치완료 -운전직렬인력운용:별도추진계획을 수립하여추진중에있음 -감사관실 및 직속기관조직개편, 행정실무원 인력운용:교육부기구·정원개선안과 연계하여검토 -시설관리직렬인력운용:교육부기구·정원개선안과 연계하여검토
장기재직휴가관련조례및 운영지침개정	2016년1/4분기노사협의회시까지 적극개정검토



## 2015 노사 활동 실적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5년 12월 24일 2015 노사 활동 실적 보고회를 가졌다.

노사실적 보고회는 한해 동안 노사가 함께 활동한 사안들을 되돌아 보고 다음 한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이날 이영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조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이번 일반직 조직개편의 80%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모두가 23개 시·군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는 지부장들과 노조 임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김종기 위원장은 “2015년 한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경북교육청과 노사 상생을 통해서 숙원사업이었던 승진 체 해소 등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면서 2016년에도 노사가 화합속에서 상생 발전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하였다.

실적보고는 공무원단체 담당 주경영사무원이 하였으며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한마음체육대회」 「김장김치 사랑 나눔 행사」 「노사상생 협력선언」 「건전노사문화 구축 유공자 표창」 「노사합동워크숍」 「노사협의회」 「노사교육」 「노조 임원 맞춤형 노동교육」 「행정발전 토론회」 「노조 주관 TF팀 운영」 「노사문화 우수기관 선정(대상)」 등 활동사항을 이어 정원상사무총장이 노동조합의 주요 대외 활동으로 「황우여 부총리 면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안동 신도시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재책정 요구」 등 활동사항들을 보고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과 23개 시·군지부장, 이영우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국장 등을 비롯한 본청 과장급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대구·경북공공기관협의회 2월 월례회 개최

- ☞ 일자 : 2016. 2. 23. (화)
- ☞ 장소 :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
- ☞ 회의내용 :
  - 1) 제2회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축구대회 개최 건
  - 2) 2016년도 사회 봉사활동 방안 모색



### 대구·경북공공기관협의회 3월 월례회 개최

- ☞ 일자 : 2016. 3. 17. (목)
- ☞ 장소 : 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2015년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 ☞ 일시: 2016. 3. 11. (금) 15시
- ☞ 장소: 경북교육노조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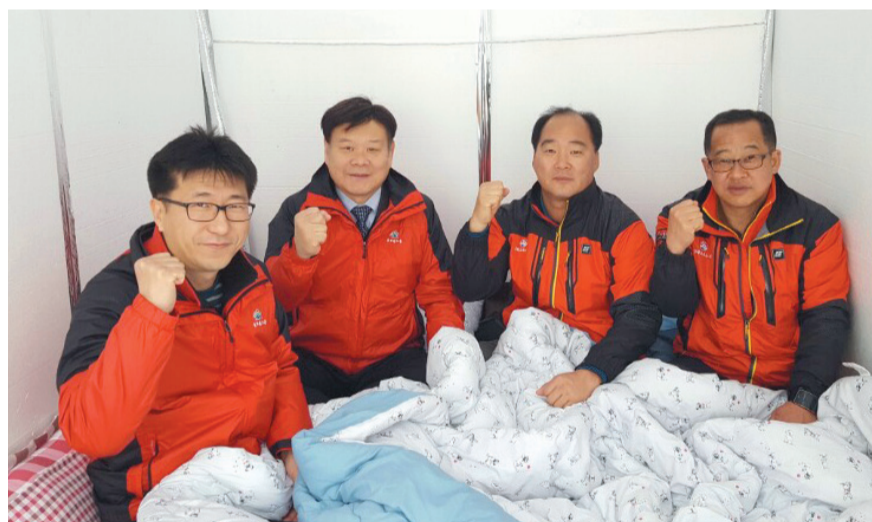
## 성과평가제 폐지 촉구 1인 시위 참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6. 3. 8. (화) 국회앞에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가맹 교육노조들과 함께 1인 시위 천막농성에 참가 하였으며 천막농성은 22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은 정부가 지난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구안에 대한 수용은 커녕 오히려 인사혁신처에서는 저성과자에 대

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올해부터 보직이 있는 5급공무원까지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강화하고 있고,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법안입법예고 등 공무원의 권익을 후퇴 시키면서 공무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항의를 위한 것이다.

이번 시위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주도로 4개 연맹이 릴레이식으로 24시간 전개 하고 있으며 경북교육노조는 8일부터 9일까지 김종기 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설성환 연대협력국장, 신영찬 경주지부장이 참석하였다.



## 사랑의 김장행사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5년 12월 2일 김종기위원장 외 본조 임원, 시군임원과 함께 이영우 교육감 및 국·과장이 상 간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학교급식 조리사회 회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15년 11월 7일에 열린 '제10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과 경북 학교조리사회 재능기부 및 농협 경북교육청출장소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참가자

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 2톤을 경북 도내 불우한 학생 200명에게 각각 10kg씩 전달하였다.

김종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가 경북교육청과 힘을 합해 어렵고 소외된 가정을 위해 작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노조는 더불어 사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연말을 맞아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들이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잘 전달돼 그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과 간담회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함께 2016. 2. 26. (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승용배 지방교육지원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행정실법제화와 점입수당 등 교육청 노조의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승용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학교행정실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각도로 노

력을 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어 충남교육노조 이관우위원장, 부산교육노조 편경천 위원장, 충북교육노조 김광소 위원장 등이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들의 권익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병설유치원 점입문제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문제는 교육청 노조가 시작된 2006년부터 논의된 사안인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

낀다면서 수당보다는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난해에도 약 150여명의 유치원 전담 행정인력이 충원되었다”면서 추가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교육부에서도 지방공무원의 권익과 관련한 문제 만큼은 노조와의 상시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후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승용배 국장은 답변을 통해 “여러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특히 행정실 법제화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였으나 결과가 없어 유감이지만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과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을 비롯해서 경기, 전북, 충북, 충남, 대전, 부산교육노조 위원장 등 10명이 교육부에서는 승용배 지방교육지원국장, 나향욱 지방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담당사무관들이 배석하였다.

## 퇴임인사

## 잘 계세요



부위원장 이명구

뜻을 함께하지 못하여 미안하며 죄송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과 함께 그동안 30여년 공직생활 명퇴 하면서 인사를 올립니다.

동지여러분!

저는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경산지부장 직책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면서 날로 변해가는 교육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10년전만 하더라도 일선학교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하지 않게 잊혀지며 눈앞에 그려지는 모든 상황에 침묵이 최선이라는 논리로 노동조합이 외면받고 적대시 하던 환경속에서 노동조합간부로 선뜻 나서지 않던 그 시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관심 없이는 우리 자신의 권익조차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아직은 불만족스럽겠지만 공무원 노조의 단결된 투쟁으로 공무원조직 역시 많이 변하고 바뀌어 가고 있는 세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공적연금개약 저지를 위한 투쟁으로 주옥같은 시

간을 보내면서 여러동지들과喜怒哀樂(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소중한 인생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부위원장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귀를 열고 행동으로 옮길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노조임원으로서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모두가 경북교육노조와 조합원들의 권익을 이루고자 충정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이해 해 주시길 바라며 좋은 기억들만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하는 이유는 비록 눈앞에 보이는 성과는 작다고 할지라도 먼 후일 후배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노조간부를 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고난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투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그것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 하였지만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오늘을 가치 있게 살고, 내일을 개척하는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도 지금까지의 결과 역시 여러분의 끊임없는 인내와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결코 이루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지여러분!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김종기 위원장님께서서는 남들이 못하는 비범한 투쟁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현장(학교)속으로 발로 뛰며 다니며 몸소 실천하는 노조위원장으로 어느단위노조 위원장들 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지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김종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다함께 좋은 것은 서로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욱더 단합되고 슬기로운 노동조합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지여러분!

저는 이제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경북교육노조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조합원 동지여러분들께 무궁한 영광과 함께 직장 혹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5년 12월  
부위원장 이명구 拜上



건강 기획연재 ③

# 건강한 숨 행복한 삶

## 단전(丹田)이란?

### 단전(석문)의 정확한 위치

석문은 한의학상의 경락 중에서 사람 앞면 정중선을 흐르는 임맥이라는 경락의 배꼽 밑 2촌(寸)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석문호흡에서는 이 석문을 잡는 방법으로 수련자 자신의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2촌이라는 단위를 cm나 그와 유사한 측량법으로 재는 것보다는 수련자 자신의 몸 일부분으로 재면 체구에 비례해서 석문 자리를 보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석문을 단전으로 잡는 이유

단전자리라 함은 크기는 하복부 전체를, 작게는 기해(氣海)나 관원(關元) 등의 경혈자리를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 만물에는 반드시 그 중심점이 있으며 단전 또한 그 핵심적인 중심이 있기 마련이다. 석문호흡에서는 이 단전의 중심점을 바로 석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전 자리로 알고 있는 기해나 관원은 그 기운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기해는 음(陰)적인 성향을, 관원은 양(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기해를 단전으로 하여 수련하면 수련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음적으로 되고, 관원을 단전으로 수련하면 수련이 힘 위주가 되므로 강하고 양적으로 된다. 따라서 단전의 중심은 이 음·양의 두 기운을 조화시키는 기해와 관원의 중간에 위치한 태극의 자리인 석문혈인 것이다. 석문(石門)을 예로부터 금구, 금침혈 자리로 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호흡에 의한 기운으로만이 굳게 닫힌 돌문을 열어 참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공(동작) 따라 하기 "하루 10분으로 스트레스를 확~날리자"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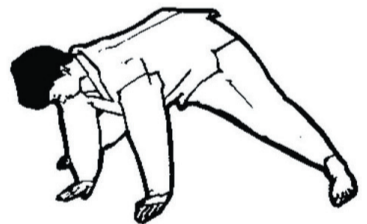


그림 3

**효과** 폐 윤택, 기관지 기능 향상 및 가슴 발달, 허리 강화

**방법(그림 1)** 엄지발가락은 붙이고, 가능하면 모든 발을 회음까지 당긴다. 이 상태에서 고개를 15°~30°정도 뒤로 젖힌다. 이때 오른 주먹을 인당에 대고 왼 주먹 바깥에 붙인다. 주먹은 가볍게 뒤고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와 중지의 첫 번째 마디에 대고 동그랗게 만든다. 감아진 양 주먹의 공간이 인당과 일치하도록 이마에 갖다 댈다.)

**효과** 팔, 다리근육과 경락 단련 및 운동신경인 평형감각 발달, 자신감 향상

**방법(그림 2)** 양발을 좌우 45° 각도로 벌린다. 양발의 넓이는 정강이 부분이 지면과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간격을 정한다.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약간만 뒤로 빼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뺀다. 양손의 위치는 단전 높이, 양손과 단전 사이의 거리는 주먹 하나이다. 시선이 양손으로 만든 원을 향할 수 있도록 고개를 약간만 숙이고 눈을 감은 뒤의식은 단전에 집중한다.

**효과** 팔, 다리, 척추 강화, 정신의 집중을 증가, 머리가 무거울 때, 저혈압인 사람에게 특히 좋음

**방법(그림 3)** 양발을 넓게 펴고, 등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상체를 숙인다. 이때 양 발 끝은 11자 모양,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자신의 발끝을 연결한 선상에 그대로 놓는다. 두손은 가볍게 짚어 무게 중심이 다리 쪽으로 오게 하여 허리, 즉 단전의 힘으로 버틴다.





일전에 텔레비전의 사극에서 조선 건국의 책사 정도전은 다투고 소란스러운 것이 정치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논쟁과 토론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라면 정도전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비록 정책이 현실성이 있다 치더라도 이해관계인 및 관련자와는 충분한 토의를 그리고 협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틀리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으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근래에 처리된 공무원연급법이나 지금 한창 논쟁 중인 노동관련 사안들을 처리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는 조선시대의 사고만 큼도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태초로 시작한 것이 노동이요, 산업화의 시작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 속에 노동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수준 이하이다. 금년을 기준으로 학교교육에서 '노동 및 노동관련'이라는 언어를 언급할 수 있는 사회과 과목 내용에 2%만 수록되어 있고, 시·도의 교육예산 중 7개 교육청만이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니,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직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면 노동교육에 대한 정규과정은 언급생심(焉敢生心)이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노동이라는 언어가 금기시되고 하류층의 의식적 또는 무의적 생존 방식이라고 해도,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노동의 문제로 시작해서 노동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리 녹록치 않다. 그래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중·고등학생에게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린다.

빅토르 위고는 "노동은 생명이요, 사상이요, 광명이다"라고 했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주무관 박홍기

기고문

꽃꽂행정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공직생활의 반환점,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 실무자에게 중간관리자로 직책이 변경되었고 어느새 사십대 중반을 지나고 있으니 그러하다.

최근 10년 중 9년을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으니 학교 업무가 낯선 측면도 있지만, 이제 두 달 보름 남짓 좋은 팀원들을 만나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어느 날, 학교회계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니 그 분이 말씀하시길, "계장님은 퇴직하기 전까지 일하지 싶어요." 한다.

그렇다. 나의 공직관을 타인의 입에서 듣는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나는 업무에 그렇게 열성적인 공직자는 아니다. 즉, 일 욕심이 승진 욕심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입장에서 최소한 받는 만큼은 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맡은 직책과 직위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역할은 같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기안을 하고, 누군가는 검토를 하며, 또 다른 누구는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해결해야 하듯이. 여하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일

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실 직원들이 저마다 업무로 바쁠 때 직위를 떠나 솔선 수범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차 한 잔을 접대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기관장은 대체로 이렇게 행동한다.

교육행정을 구름행정이라고 한다면 학교행정은 꽃꽂행정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즉 교육청에서의 행정이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행정이라면,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정이라는 뜻이다. 예산 1억원의 교부 건보다 10만원의 학습준비물 구입 건이 피부에 더 와닿는 이치다. 그래서 학교행정은 뭘 해도 들겁고 보람된 행정일 수밖에 없다.

요즘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적 대결은 공무원과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자유로운 착상과 재량권을 옥죄는 법령 개정은 결국 독이 된다. 규정에 얽매인 행정으로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제4국 백78의 끼움수에 알파고가 버그를 일으킨 장면. 우리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라면 실수할 지라도 창의적인 행정을 권장해야 한다. 물론 미래사회는 AI와 공생하는 사회가 되겠지만...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교정 뜰에 새순이 돋고 새 학기 부산한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주무관 서종철

사진 속

다른 곳 찾기 응모방법

정답을 보내오신 조합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하실 때에는 A4용지에 아래 사진을 오려 붙여서 다른 6곳을 표시한 후 지역, 성명, 소속,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모기간: 2016년 4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 보내실 곳: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우편번호 36759)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송부(Fax 054-805-3989)
- ※ 당첨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www.gbe.or.kr) 공지사항란에 알림



2015년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 수상 모습, 2016.1.20.(수)

일정안내

- 2016. 04. 14. 제24차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 2016. 04 말경 제31차 대의원대회 개최
  - 2016. 05. 21. 제11회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
  - 2016. 05. 28. 대경공공기관노동조합 제2회 축구대회
  - 2016. 06. 중순 2016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함

사진 속 다른 곳 찾기 당첨자명단 (자명종 10호)

김태영, 최수빈, 김영실, 이현미, 이미정, 이윤숙, 윤정은, 최석은, 이종학, 최잠순, 안현욱, 전유천, 서경진, 이주희, 장성락, 이영주, 이승희, 김은아, 이정혜, 전현숙, 강미옥, 이갑락, 김천국, 이영미, 홍성모

조합원 투고 안내

조합원 소식, 기행문, 시, 수필, 콩트, 만화 등 소재에 구별없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화랑이(아이디03ina) 또는 메일(03ina@gyo6.net) 문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 (054-805-3981)